

2024

10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Cross

안암 1부 소식지

University Bible Fellowship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

스바냐 3장 17절



Contents

4 안암골 개척역사 및 나의 인생소감 VII (강모세)

13 2024년 여름수양회 보고; 우리가 대담해야 할
예수님의 다섯가지 질문 (이수영)

16 여름수양회 이벤트
; 예수님의 다섯가지 질문 답하기 (신하영)

20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몸혁명 (진수일)

24 전국학사수양회소감 (제레미안)

28 안암에서 뉴욕으로 (백다윗)

30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창무)

33 2024년 8월 러너스 엠티,
함께 만들어간 특별한 추억 (임하원)

38 7살 딸의 질문을 통해 찾아본,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 (김호연)

42 믿음의 가정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안소망)

45 질병과 허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홍바울)

54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김진석)



안암골 초기 개척역사 및 나의 인생 소감 VII

글 강모세(뉴욕UBF)

I. 김엘리아(김태균) 목자의 죽음



칠암산 수양관에서 세븐타이거(김태균 목자-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태균 목자는 7 타이거 멤버 중 한 명이요 초기 화요회를 계승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군대에서도 믿음의 투쟁을 잘하고 제대후에는 대우전자에 입사하여 평신도로 회사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경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문제는 이복 형제들과의 경쟁속에서 무시받은 것을 세상에서 출세함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야심이었습니다. 대우전자를 그만두고 당시 '전기통신공사'라는 공기업(현재의 KT)에 다시 입사를 했는데 연수 성적이 tap이어서 통신공사 사장이라는 출세길에 대한 야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센터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1, 2년후 그가 결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초대받지 않았지만 수소문하여 그의 결혼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보니 대부분이 불교 중들이었습니다. 신부의 부모가 원불교 주 지승이어서 대부분의 하객들이 원불교 신도들과 머리 깎은 중들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희는 김태균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심방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4, 5년이 지난 1991년쯤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김태균이 서울대 병원에 혈액암으로 입원해 있고 양마가 목자님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안나 사모님과 함께 서울대 병원으로 김태균을 심방하러 갔습니다. 그는 혈액암 판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상 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쓰러져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UBF 동역자들은 헌혈까지 하며 그를 도왔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역사의 문지기라도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화장을 한 후, 우리는 그의 유골을 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칠암산 수양관 뒷산으로 가서 그의 유골을 산에다 뿌렸습니다. 칠암산 수양관은 그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한 곳으로, 그때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30대 초반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간절히 바라던 친구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 앞에서 세상 욕심과 명예의 부질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살아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요, 축복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 때가 있고, 또 자기 욕심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흐려질 때가 많지만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보수 풀타임의 고되고 가난한 삶도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II. 소련 개척 역사

1990년초 당시 UBF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소련 개척역사였고 안암골 역사도 소련 개척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쓰고자 합니다. 소련 개척 역사는 1985년 고(故)이사무엘 선교사님의 기도제목 제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1995년까지 10년 내에 소련을 개척할 수 있도록 UBF 전체 기도 제목을 주셨고 저희는 방향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소련과의 외교관계나 어떤 교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이 떨어져 물결의 파장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센터 출신의 제임스 황이라는 분이(제가 이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1989년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사건이냐면 당시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모스크바에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소련개척의 기도제목을 깊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황 선교사님이 모스크바에 가게된 스토리는 저도 그때 제3자를 통해 들은 것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은대로 쓰고자 합니다. 나중에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올림픽 이후 동구권의 공산화가 무너지면서 1989년 2월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황 선교사님은 일단 헝가리로 갔습니다. 그는 헝가리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서 소련으로 가는 비자를 받고자 하였지만 당연히 거부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사관을 떠나지 않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안에서 계속 서성거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 했던 대사관 직원이 무엇을 가지러 다시 대사관에 들어왔고, 서성거리는 제임스황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비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모스크바 공원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인 출신 모스크바 대학 교수가 공원을 지나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임스황 선교사를 만났고 사정을 듣고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할 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천지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일 년 후 소련이 붕괴된 후 1990년 9월 30일에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UBF 선교사님들이 물밀듯 소련으로 파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해인 1991년까지 안암골에서 러시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명단은, 송소망(송용원), 남석주, 황진젠돌프(황영철), 강희영, 이옥순, 강루디아(강숙자) 이렇게 기억됩니다. UBF 선교사님들은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0년부터 모스크바 여름 수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1995년까지 소련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믿음의 용사 한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도 바꾸시고 소련이 일찍 붕괴하도록 역사하신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1991년 소련 선교사님들 사진

III. 미국 매릴랜드 선교사로

제가 1990년 6월 직장을 그만둘 때, 양마가 목자님은 1년 내로 미국 매릴랜드 재봉공 비자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성장하는 시니어회와 전체 역사를 섬기며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993년 5월에 딸 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모세도 경주 부모님이 키우셨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하영이는 제가 풀타임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때 교사였던 문옥 사모님의 월급이 50만원 정도였는데 베이비시터 금액만 3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들 모세 유치원비를 내고 교통비를 내고나면 남는게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물질적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남가좌동에 사시는 장모님이 매주 쌀과 김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못한 사위가 되어 귀한 딸 고생시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장인, 장모님은 제가 기죽지 않도록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모세는 다행히 성격이 활달하여, 1년 유치원 졸업 후 제기천과 제기시장을 주름잡으며 잘 놀았습니다. 저보다 일찍 제기시장으로 출근하여 시장 아줌마 아저씨들과 인사하고 아침, 점심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녁은 학생장막 중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얻어먹고 하루종일 노느라 피곤하니 장막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센터 일과가 끝나는 밤 10시 30분경, 아들 모세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모세를 업고 집에 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수양회때면 저와 동역자를 위해 낼 수양회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질이 필요한 학생들도 도울겸 그때 그때마다 공사판 노가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가서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어 공사판에 가서 흙파기, 콘크리트 비비기, 벽돌 나르기를 하였습니

다. 이렇게 하루 일하면 당시 2만원을 받았습니다. 6일 정도 일하면 저와 동역자를 위한 수양회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노동을 6시에 끝내고 부랴부랴 씻고 7시 여름수양회 전체 기도모임에 갔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양마가 목자님은 인턴 목자가 늦었다고 모든 후배들 앞에서 손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바라고 사는 것임을 생각하자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옥 동역자(아내)는 노가다 하느라 저의 등에 생긴 피멍을 보며 속으로 울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다림 속에 또 일 년이 지나 1994년이 되었으나 미국비자 소식은 없었습니다. 1년을 예상했는데 만 4년이 지나자 저의 인내심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로 양마가 목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저는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올해(1994년)내로 미국 비자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신도 목자로 돌아가 다시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은근한 협박성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 인터뷰하러 오라는 연락이 미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매릴랜드 선교후보 원년 멤버가 아니고 대타로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 기다리는 12가정 중 유일하게 저의 가정만 인터뷰 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저와 동역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으로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민대행업체가 코멘트 해준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통역하는 한국 아가씨가 옆에 있었지만 저는 통역 없이 영사와 직접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사는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 하였고 서류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머뭇거리며 인터뷰를 계속하였습니다. 서류상 저는 대졸에, 잘 나가는 대기업을 그만두었고, 동역자는 고졸 미싱공으로 작성되었으니 제가 보아도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트집잡을 것이 없자 영사는 비자를 우리에게 던지듯 주고 “Good Luck.”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Pass(합격)인지 Reject(불합격)인지 구분이 안가서 서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통역 아가씨가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비자예요, 가져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Praise the LORD!



드디어 미국 비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때가 1994년 가을이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설날때 경주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경주로 미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자를 들고 다시 미 대사관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자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대사관에 오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유리창 너머 몇사람이 토의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내용이 우리들 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비자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X-Ray 사진을 다시 찍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정이 비자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기원(캐나다 런던) 목사님 가정이 했는데 거부당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권호동(캐나다 밴쿠버) 목사님 가정이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 안주냐고 질문을 하니, 이 케이스로

는 비자를 줄 수 없으니 역올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남편 대졸, 와이프 고졸로 되어있어 대사관에서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2가정 중 저희 가정만 매릴랜드로 나아 갈 수 있었고, 나머지 가정은 미국으로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가정들도 캐나다로, 러시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1995년 4월 20일 8개의 이민 가방을 들고 모세(6세)와 하영이(1.9살)를 데리고 미국 워싱턴 근처 BWI 공항에 도착하여 워싱턴 센터의 선교사님들과 미국 목사님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1995년 미국 볼티모어 도착



볼티모어 리마스 목자와 함께

돌이켜보면 1980년 학생목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선교사로 나아가기까지 15년의 세월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의 학생목자 생활, 6개월 군대전 인턴생활, 3년의 군대생활, 4년의 엔지니어로 평신도 목자생활과 시니어회 개척, 5년의 풀타임 목자생활등 많은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의 무의미와 공허함으로 기쁨이 없던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사 선교사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선교사로 오기 전 양재규 목자님이 법대생으로 사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원보, 강임선 목자님에게 양재규 목자님이 잘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시 패스 소식을 듣고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법대생 목자들 중 안암 센터에서 사시 패스한 목자님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UBF는 평신도 선교사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있는 사람이 될 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헌신하여



특출함을 나타내고 이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이에게, 더 강력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음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로, 외교관으로, 판검사로, 직장에서 영향력있는 위치로, 큰 사업가로, 교육가로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성장할 때는 무엇이든 세상과 연관된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복음적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대충하고 일대일만 열심히 하고, 대학원도 안 가는게 믿음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은 그냥 월급 받는 곳으로 대충하고, 비즈니스에 은사가 있어도 돈버는 것은 욕심으로 하는것으로 여겨지며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많이 변했고,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본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어려워진 캠퍼스 역사에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자라나는 학생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영향력 있는 평신도 목사들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평신도 목사, 선교사들을 통한 이 귀한 UBF 학생 복음 역사가 계속하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거쳐 하나님께 계속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안암 센터를 통한 학생 복음역사는 정말 이 시대 희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양마가, 양안나 목사님들의 말씀중심의 헌신과 섬김, 많은 목사님들의 믿음과 희생, 센터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족한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예수님의 다섯 가지 질문



이수영

2024년 안암1부 여름 수양회가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주 한마음 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4년 만에 외부 장소에서 열린 수양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운 수양회였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예수님의 다섯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다섯 개의 말씀을 강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가지 질문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누가복음 10장),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가복음 8장), ‘너희도 가려느냐’(요한복음 6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장),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누가복음 17장)였습니다.

저녁 은혜 1강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전한 박철한 목자님은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자고 증거했습니다. 주제 1강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전한 신성진 목자님은 여러 인생 고난을 통해 자기 영광을 흔쾌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저녁 은혜 2강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을 전한 김건아 목자님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주 지방에서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누렸던 풍성한 은혜와 특히 올해 여름 수양회 말씀 강사로 세워주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주제 2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전한 진다니엘 목자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유학생 선교사로, 평신도 목자로 놀랍게 축복하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폐회 예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한 안소망 목자님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송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 사람

이 되자고 눈물로 증거했습니다.

저녁 은혜 시간에는 인생 소감과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생 소감을 통해서 이성산, 모주주, 문사무엘, 양제한, 이화목, 장에스페르, 장마리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김주명, 이수지, 임성아, 류진규, 이예진, 이유경, 최성준, 임성경 목사님들이 말씀 한 마디에 기초하여 깊이 있는 소감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소감 강사님들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석자들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는 공동체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니어 두 팀과 러너스 한 팀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전체 네 개의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 안에서 특송 준비, 분반 공부, 소감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개의 팀이 그룹을 이루어 함께 부르는 특송은 가히 합창이라고 할 만합니다. 말씀 강의를 시작되기 전 아름다운 합창을 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반 공부와 소감 나눔을 통해서 진솔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쓰고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소감을 발표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암1부의 자랑 ‘하이 예스팀’이 힘차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의 합류로 더욱 풍성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은혜 시간에는 장이삭, 장엘리야, 장사라 2세와 장선영 사모님의 헌악 특주가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합주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은혜 시간에는 JBF 학생들이 준비한 특송이 있었습니다. 선곡부터 연습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특송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CBF, JBF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너른 잔디밭에서 물총놀이, 곤충 채집을 하며 뛰어놀기도 하고,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에서 운동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 수양회는 풍성한 양식의 은혜가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말씀과 소감, 찬양의 영의 양식이 풍성했을 뿐 아니라 식사와 다과 등의 육의 양식 또한 풍성했습니다. 전 세대가 고루 만족할 만한 식단에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식사와 하나씩 꺼내 먹는 재미를 준 다과 파우치는 참석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은혜로운 2024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우리가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내년 2025 여름 수양회가 기다려집니다.



여름 수양회 이벤트

-예수님의 5가지 질문 답하기-



글 신하영



2박 3일 동안의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수양회 동안의 5강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5가지 질문 답하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진행 방법은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짧게는 1~2줄, 길게는 5~6줄까지 쓰는 것이었고 말씀 강사분들이 주제 강의 답변 중 하나씩 선정하여 베라 기프트콘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성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이 질문은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허무와 미움에서 구원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답변들 중 이예진 목사님께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를 성찰하며 앞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기도한다는 답변을 달아주셨고, 신성진 목사님께서 가장 감명 깊은 댓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앎이 아닌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많은분들이 공감할 만한 대목이자 기도제목인 것 같습니다.

진승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가라사대 네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고 매일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기도와 결단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았습니다.

답변들을 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린 양을 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을 다시 한 번 알았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매일의 삶으로 그리고 사명에 충성함으로 입증하길 기도합니다.”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진기도 목사님께서서는 수치스러울 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달아주셨고 이 답변이 가장 감명 깊은 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철한 목사님 메시지에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 답변에는 피상적으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읽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답변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랑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읽고 저도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힘 주소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지금 저에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중에서도 김현유 목사님의 답변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 읽기를 소원함을 적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지 않고 삶으로 읽는 주의 종 되길 기도합니다.”

김건아 목자님의 ‘너희도 가려느냐’ 메시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답변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이시고 진리시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굳은 각오들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영생이 있사오니 내가 우짜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가 죽어도 안 떠날란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 동행은 영원한 동행 무조건, 어디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김건아 목자님께서는 ‘아니요’라는, 대답이 명확한 노수연 목자님의 답변을 가장 감명깊은 답변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안 갈래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거예요!”

안소망 목자님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메시지에서 이 질문은 나옴 받은 열 명 중 오직 한 이방인만이 예수님께로 와 영광을 돌리러 와 하신 질문이었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주신 말씀입니다. 답변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머지 아홉이 아닌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온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아홉보다 감사하러 온 이 하나를 보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주변의 90%가 당신을 모른척 해도 설령 99%가 당신을 부인하기까지 해도, 제가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높이겠습니다. 스테반 같은 외로운 예배자, 순교자가 될 때에 그의 뒤를 잘 따르도록 제 영혼을 단련해 가옵소서.”

안대일 목자님께서는 류용미 목자님의 답변 “그 아홉은 아마 집에 갔을 겁니다. 저는 주께 믿음과 예배와 감사드립니다.”를 베스트 답변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몸혁명」



글 진수일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습니다. 제 구글 뉴스는 ‘건강’ 관련된 뉴스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최근 MZ세대의 평균수명이 100세가 넘을 것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0세라는 숫자가 지금의 칠순처럼 느껴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사는 것’이 개인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 극심한 고통을 무기한 연장하는 삶은 개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제가 발견한 책이 바로 ‘내몸혁명’입니다. 책 제목이 제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이 책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자 : 박용우 박사 (의사)

저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3년간 비만치료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 대사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음식중독」, 「4주해독 다이어트」, 「박용우의 신인류 다이어트」, 「내몸 다이어트 설명서」, 「비만치료의 최신지견」, 「비만의 진단과 치료」, 「임상영양가이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및 성균관대의대 임상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것일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뚱뚱해지는 것일까?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어서’ 혹은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비만은 몸이 망가져서 많이 먹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계속 체중이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어쩌다 과식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잉여 에너지가 체내로 들어온 만큼 몸이 에너지소비를 평소보다 더 늘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쉽게 살이 찌고, 누구는 안 찌까요?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몸의 대사유연성이 좋습니다. ‘대사유연성이 좋다’는 말은 쉽게 말해 포도당과 지방을 적시에 잘 꺼내 쓰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당을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쓰다가 필요할 때(공복일 때)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시켜 당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좋은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스위치”가 잘 작동해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반대로 쉽게 살이 찐다는 것은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대사 유연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복일 때 ‘지방(유리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데 몸이 지방은 그대로 놔두고 ‘포도당이 떨어졌으니 포도당을 더 달라(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먹게 되고, 지방은 쌓여만 갑니다. 지방간, 내장지방이 증가하고 체중과 허리둘레가 늘며, 근육량 감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3. 대사 유연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 간헐적 단식을 하십시오. (14시간 공복유지¹⁾, 탄수화물 자제, 단백질 셰이크 하루 4번,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에 끝내기)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비축된 글리코겐(포도당 저장창고)이 줄어들면서 배고픔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음식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니 몸은 비축해두었던 지

1) 14시간 이상 단식할수록 효과가 좋음. 효과가 극대화되는 단식은 24시간.

방(유리지방산)을 꺼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섭취량을 줄여 체중감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스위치”가 수리되고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지방 연소를 자극하는 성장호르몬과 글루카곤,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활성물질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48시간 단식을 하게 했을 때 성장호르몬이 무려 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늙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백질이나 세포기관 등에서 필수적인 성분들을 꺼내 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재활용합니다. 자가포식을 통해 산화스트레스, 만성염증 등이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DNA 손상을 막아주며 암은 물론 당뇨병 등 대사 장애도 예방합니다.

주의할 것은 “잘 챙겨 먹다가 간간이 굶어주는 것(간헐적 단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칼로리 다이어트(평소보다 20~30% 적게 먹는 것)’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보다 체중감량,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효과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는 만큼 안정시 대사율(기초대사량과 유사한 개념)이 저하돼 오히려 몸의 에너지 사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불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이 안 들어 오는 것’에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안 먹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침을 거르거나 저녁을 안 먹는 것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해당합니다. 공복 외 10시간 동안 단백질 셰이크를 통해 근육의 손실을 막고 안정시 대사율의 저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할 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근육의 당 대사와 지방 대사를 개선시키고 대사유연성을 좋아지게 합니다. 쉽게 말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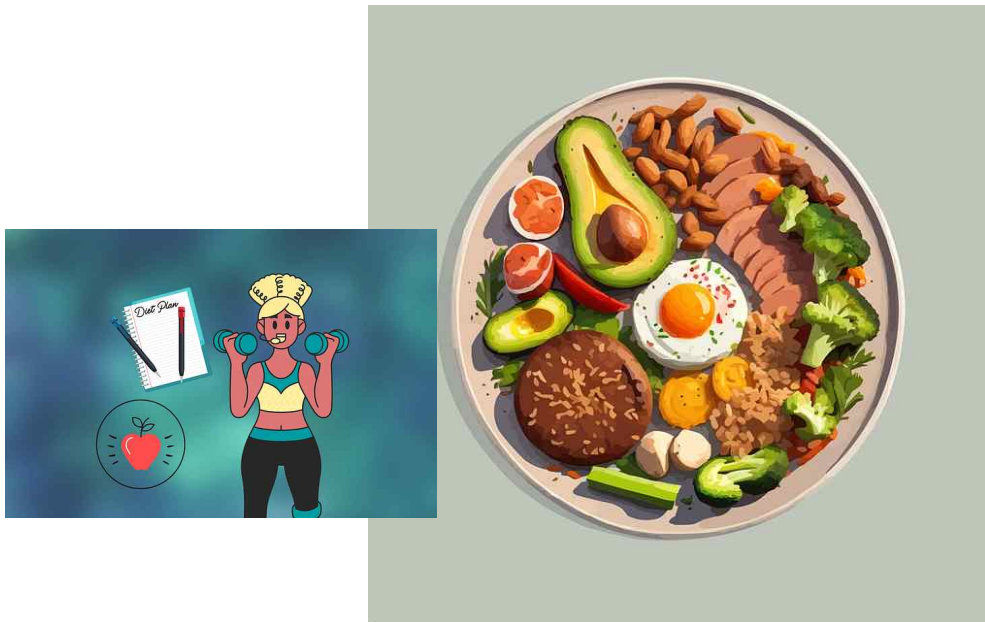
운동은 간헐적 단식과 같은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평상시 하루 세끼를 잘 먹다가 단식으로 에너지섭취량을 줄여 에너지 밸런스를 (-)로 가져가는 것과 같이 평상시 걷기 등의 가벼

운 신체활동을 하다가 전력으로 뛰거나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르는 등 에너지소비량을 늘려 에너지밸런스를 (-)로 가져가 몸에 '의도적으로' 짧게 불편한 스트레스를 주어야 합니다. 추천하는 운동법은 바로 '고강도 인터벌운동'입니다. (상세 내용은 유튜브 참조) 약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켜야 하듯, 운동에도 용법과 용량이 필요합니다. 운동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운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 잘 자야 합니다. (7시간 이상 숙면 필요)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은 대사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면부족은 식욕조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숙면은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대사유연성을 높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몸혁명'이라는 책 중에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내용을 서술해 봤습니다. 평소 단식에 대해 무지했었는데 이번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30일 다이어트" 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전국학사수양회 소감



글 제레미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이 말씀은 현재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전국학사수양회 주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택된 이유가 오늘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94년 입학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자생활도 3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 방송업무를 한지도 2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모임에서 언제든지 예배홀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23년 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송 준비하는 시간만큼 더 많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매여야만 하는 곳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방송도 후배 목자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차에, 하나님께서 특허청 심사관의 새 삶으로 이끌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커리어 상으로는 분명 좋은 일이고, 제가 바라고 원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대전이라, 두 집 살림을 하고 주말에만 물리적으로 모임에 나와야 합니다. 30년 동안 군대 2년을 빼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나의 이 선택이 옳은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창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시기로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년이 없는 공무원이고, 단독 심사관이 되면 재택근무가 가능하기에 목자 생활을 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센터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 매일 새벽에 가던 곳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늦은 나이에 학위를 따고, 캠퍼스로 다시 들어가고자 도전을 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열릴듯, 열릴듯 하다 안 열린 교수 목자의 길이 제게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매학기 25군데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고, 3-4 군데 면접을 본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제게 면접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특허 심사관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의 상태입니다.



이번 달(6월) 24일부터 특허청 심사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곳의 적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에 순종한다는 것은 제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캠퍼스 미션만 미션은 아닌 줄 압니다. 제게는 엄연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미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리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고, 맡겨주신 목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센터에서 방송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배부장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라클팀 팀장 직분도 섬기고 있고 해서, 두 직분 중에 예배부장 직분은 이직과 동시에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렵더라도 계속 제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현재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캠퍼스의 문을 믿음으로 두드리는 것, 이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필요한 강의 경력도 갖추는 것이 현재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꿈을 끝니다. 3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늘 고려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5명만 달라고, 그러면 고대를 뒤집어 보겠다고 호기어린 기도와 말을 하기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유효한 저의 마음 상태입니다. 고대 교수로 55세 전에 들어와, 캠퍼스 가운데 목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9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캠퍼스에서 부흥을 경험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80년 부흥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게 느끼기도 하면서,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없이 일대일하고, 원없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돕는 목자의 삶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한 목자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심은 붙드는 것이다.” 부르심은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캠퍼스 목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거룩하고 엄중한 부르심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외별이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동역자가 풀타임으로 JBF역사를 섬기는 것, 풀타임 사모로 센터 역사에 헌신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현실은 염려 투성이지만, 지난 시절 한달 벌어 한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달 벌어 한달 사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저의 목자가 되어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버님이 팔순이고, 어머님이 칠순이라 큰 돈이 생기길 기도했는데,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이 믿음이 있는 것에,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게 맡겨 주신 일, 제게 맡겨 주신 사람들,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최선을 주님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마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암에서 뉴욕으로

글 백다윗



백다윗 목사 - 사진에서 왼쪽

안녕하십니까, 저는 멕시코에서 온 백다윗입니다. 2015년 8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암 UBF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에 온 첫 일요일 아침, 안암역 근처의 약국에서 김스테반jr 목자님을 만나 함께 안암 UBF로 갔습니다. 그날 이창무 목자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이후 광고 시간에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9년의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저는 처음에 낯선 언어와 문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암 UBF 목자님, 사모님, 형제님, 자매님들의 섬김과 도움 덕분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안암 UBF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안암 UBF를 통해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떠날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계획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한국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다니고 군대도 만기 전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미국 뉴욕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갑니다. 안암 UBF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기에, 안암 UBF는 저에게 영적인 고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올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것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암 UBF와 러너스 역사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제목:

- 안암 UBF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안암 UBF의 목사님, 사모님, 형제님, 자매님들의 많은 섬김과 사랑,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뉴욕 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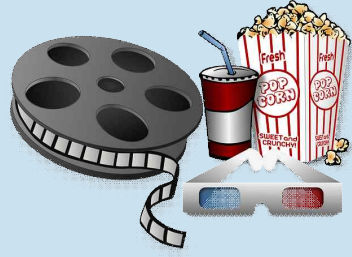
-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안암 UBF에서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잘 섬기고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붙잡고 박사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영화를 추천합니다



글 이창무



요즘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감동적인 영화 7편을 소개합니다. 신앙과 도덕적 가치,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영화들을 골라봤습니다.

1. 오버커머

영화 소개: “오버커머”는 고등학교 농구 코치 존 해리슨(알렉스 켄드릭)이 직면한 도전과 믿음의 여정을 그린 감동적인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농구팀이 해체되고 학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은 낙담하지만, 크로스컨트리팀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선수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천 이유: “오버커머”는 신앙과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와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2. 오두막

영화 소개: “오두막”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린 맥 필립스(샘 워싱턴)가 한 편지를 받고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추천 이유: “오두막”은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3. 우드론

영화 소개: “우드론”은 1970년대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 실제로 있었던 고등학교 풋볼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인종 간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팀은 믿음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주인공 토니 네이션(켈럽 캐스티유)의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추천 이유: “우드론”은 인종 차별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신앙과 팀워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더욱 감동적이며,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4. 오토라는 남자

영화 소개: “오토라는 남자”는 까칠하고 외로운 노인 오토(툼 행크스)가 새로운 이웃과의 우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오토는 초기에는 이웃들에게 냉담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변화하게 됩니다.

추천 이유: 이 영화는 인간 관계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따뜻하게 그립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의 고독과 재발견을 다루며,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5. 바울

영화 소개: “바울”은 사도 바울(제임스 포크너)의 마지막 여정을 그린 영화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루크(짐 카비젤)와 함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는 바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가 겪은 고난과 믿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추천 이유: 이 영화는 초기 기독교 역사와 사도 바울의 헌신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울의 강한 믿음과 용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6. 부활

영화 소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로마 군인 클라비우스(조셉 파인즈)의 시각에서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활의 진실을 목격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추천 이유: “부활”은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여, 부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의심을 넘어서 진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신앙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7. 소울 서퍼

영화 소개: “소울 서퍼”는 상어 공격으로 팔을 잃은 베서니 해밀턴(안나소피아 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녀는 사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서핑에 다시 도전하며, 믿음과 용기로 꿈을 이뤄갑니다.

추천 이유: 이 영화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베서니의 강한 신앙과 의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영화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러너스 엠티,

함께 만들어간 특별한 추억



글 임하원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러너스 엠티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또는 당일치기 여행을 할지부터, 놀이동산, 워터파크, 펜션, 센터 등 장소 선정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논의 끝에 센터 내에서 당일치기 엠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풍성한 말씀공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식사와 디저트, 그리고 함께 웃고 즐긴 레크리에이션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24 러너스 MT 일정표				
2024.08. 07. 토				
시간	내용	장소		인도자
15:00 - 16:30	스바냐 성경공부	주씨, 주토피아	마크홀	이창무 목사님
		갯섬플레이스, 오예스	러너스룸	문수정 목사님
16:30 - 19:00	저녁식사	러너스룸		
	후식			
19:00 - 22:00	레크리에이션	마크홀		
22:00 - 23:00	탁구 / 보드게임	탁구: 본관 6층 탁구장	보드게임: 마크홀	

엠티의 첫 일정은 스바냐 말씀공부로 시작하였습니다. 두 팀씩 함께 공부하였고 이창무 목자님과 문수정 목자님께서 은혜롭게 섬겨주셨습니다. 간식팀에서 준비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씩 마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러너스들과 함께 공부를하며,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웠습니다.

이어서 저녁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휴대용 가스버너와 불판을 이용하여 삼겹살, 목살 등 고기를 구웠습니다. 엽기떡볶이, 찜닭, 곱도리탕까지 더해져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뜨거운 땀별 아래 고기를 열심히 구워준 고기굽는 팀의 섬김으로 어디서든 맛볼 수 없는 고기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땀별 아래 고기 굽는 팀(멤버 일부만 찍혀있음)



풍성한 저녁식사 현장

저녁식사 후에는 간식팀에서 준비한 디저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요거트에 다양한 토핑을 섞어서 만든 간식은, 요즘 핫한 요아정(요거트아이스크림의 정석)에 못지않게 달콤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각종 다양한 토핑들



맛있는 디저트를 제조하는 과정

마음과 몸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은 뒤,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림 자매님을 중심으로 저를 포함하여 신준명, 이유경, 이재현 목자님들이 여러가지 게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랜덤으로 팀을 나누어, 1교시에는 PPT를 이용하여 성경 도전골든벨, 노래 전주 듣고 맞추기,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였습니다. 1교시 게임 점수를 합산하여 1등팀에게는 2교시 게임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꼴등팀에게는 벌칙의상을 입히는 깜짝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비록 벌칙의상이었지만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잘 어울리게 소화하여 더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벌칙의상과 꼴등팀

2교시에는 인간 윷놀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윷놀이 게임을 크게 만들었는데, 윷놀이 말은 사람이, 윷은 큰 박스로, 윷놀이판은 마크홀에 크게 꾸며두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미니게임들도 함께 진행하여 게임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말 4명이 먼저 나온 팀부터 1등을 차지하였고, 상품은 말씀 관련한 문구류를 받았습니다. 1등: 설교/묵상/감사 노트, 2등: 말씀키링, 3등: 말씀 스티커, 4등: 말씀엽서였습니다.



인간웃놀이 게임 현장

마지막으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체력이 방전된 러너스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사람들은 탁구나 보드게임을 하며 아쉬운 시간을 달래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러너스 엠티는 주님의 보호 아래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



마지막 자유시간

7살 딸의 질문을 통해 찾아본,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



글 김호연



김호연 목사와 딸 김선하

저에게는 7살된 딸 선하와 아들 하율이 있습니다. 저는 둘 중 선하와 같은 방에서 자는데, 선하와 자기전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선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죽는 거 싫어, 왜 죽어야돼, 죽는 거 무서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엔 아직 어린 아이가 어울리지 않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나 웃음이 나고 기특했고 죄와 죽음, 믿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줄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가끔씩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질문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아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된 말씀공부 내용과 성경구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활을 바라는 믿음이 더욱 생겨났습니다. 다음은 선하가 물어본 것 중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 3가지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과 메시지들을 찾아보며 이해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1)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거야?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목사님이나 연구가들의 견해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는 건 죽음 직후에 의인이 잠시 머무르는 낙원(paradise)에 가고 그 이후에 부활한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옆의 도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paradise)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말 그대로 죽고 난 직후 낙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낙원은 재림 심판 이후에 부활하여 가게 되는 천국(heaven)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간증하며 아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낙원(paradise)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후 12장 4절)

또 한가지는 죽음 이후에 잠들듯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재림 심판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시편 146:4)

중요한 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죽음 이후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질문2)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거야? 할머니는 할머니로 부활하는거야?

선하는 자기가 어른에 비해 나약한 어린 몸으로 부활할까봐 걱정되고, 할머니는 좋지 않은(?) 할머니 몸으로 부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노쇠하여 잘 움직이지 않는 육체와 여기저기 고통받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텐데 나중에 부활할 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육신이 아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 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전 15:42~4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몸 상태로 변화될까요? 혹시 이전의 나를 알아볼 수도 없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하는 것일까요? 연대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단서로 설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에서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과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의 부활체는 이전 육과는 달리 신령한 몸일지라도 이전 몸의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부활 후의 모습은 선하의 걱정과는 달리 선하는 선하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면서도, 아빠, 엄마가 원래 그 선하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질문3)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거야?

선하는 아직 가족인 엄마, 아빠, 하울이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가족들을 못 만날까봐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난 뒤에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기존 육신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면, 천국에서 가족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재회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기존 세상에서와는 조금은 다른 관계일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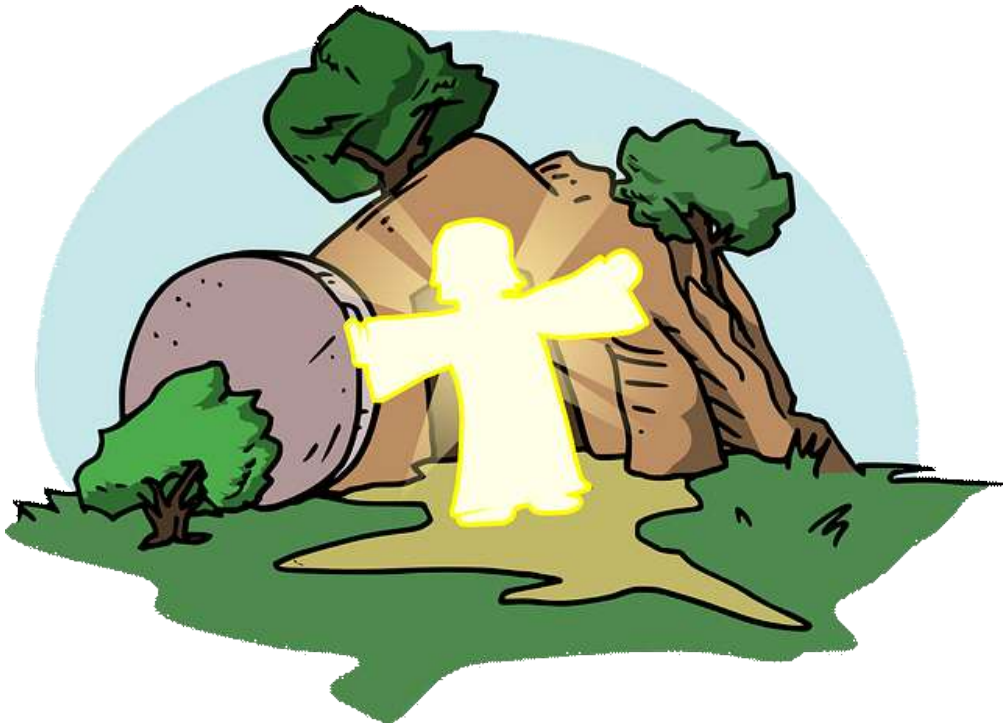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칠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아내에 대한 사례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 29~30)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한 관계이지만, 부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제도와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와 저는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 다음이겠네 라고 저 혼자 생각하면서 살짝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음으로 인해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을 때, 그래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필연적인 비극에 다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할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제 막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어린 아이의 마음에 팩트폭행을 날리거나, 혹은 애써 거짓으로 빈약한 해피 엔딩 시나리오를 꾸며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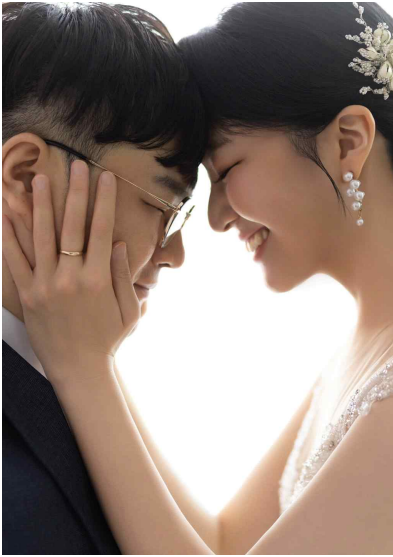
우리를 위해 부활 이후의 삶을 예비하시고 현생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글 안소망



요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
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1부의 손진화 목자와 가정교회를 이루게 된 안소망 목자라고 합니다. 많은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믿음의 가정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정교회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항상 무기력하고 힘들어 했으며, 잠이 부족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항상 자매 동료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힘든 상황들은 저를 더욱 더 가정교회에 소망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았고,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에 최전선에 투입되는 상황 가운데 삶이 무너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우울감에 시달렸으며, 무엇보다도 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간절한 예배에 대한 소원이 사라졌습니다.

뉴욕에 파송되신 배웨슬레 선교사님은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방향을 주시고, 재정을 주님께 맡기고 십일조를 드리도록 방향을 주셨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제목 가운데 믿음의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기도제목이 있었는데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셔서 자매님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저를 아니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고후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나누며 아름다운 목자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얼떨떨했습니다. 자매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해서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저랑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매와 밥을 먹어야겠다. 나도 밥을 참 좋아하고, 말씀공부하면서 얻어먹은 밥의 무게가 남다른데 그렇다면 '내가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선적으로 밥을 먹는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축복하시고 먼저 우리가 밥을 먹게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과 요회 목자님들과 가족들과 특별히 밥을 같이 먹는 교제를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교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문제 앞에서 연약한 저의 내면과 자매 목자님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져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이를 축복해주셨습니다.



저의 여동생 진영이와, 자매 목자님의 아버지인 장인어른과 밥을 먹고 교제할 때 특별히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나를 도구 삼으셔서 교제하도록 같이 밥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맞아 나 밥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후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것을 영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성령님의 바람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맘 놓고 밥을 먹으려 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상보다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 위기를 느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밥을 먹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일용할 양식 말씀이 끝나고, 갑자기 요한복음 후반부 양식 말씀이 시작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9월 7일 오늘 일용할 양식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21: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줄 아 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자가 없더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모든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밥을 먹이시고 섬 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실제적인 사랑이구나라는것을 영접하게 됩니 다.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것이 기적이던데 먼저 소망이 없던 저를 변화시키시고 실제적으로 앞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셔 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제2막을 동역자와 함께 같이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동 역하라고 하시니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나의 보잘것 없는 인생 자체가 정말 주 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살아있는 예배이자 경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교회가 밥이 풍성한 가정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잘 잡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잘 맺고 섬기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마디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질병과 허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홍바울, 미국 톨리도대학 경영학과 교수

안암소식지 편집자 진옥미 목사님으로부터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들으려 할 것인가 생각하여 물어보니 흥미가 있다고 격려해주셔서 쓰기로 작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안암UBF에 왔을 때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 차례 나누어진 바 있기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이 글들은 단순히 저의 영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세계의 배경, 즉 저의 관심사,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저의 신앙 여정을 형성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단순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제 기독교 신앙을 이끌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병과 삶에 대한 갈등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결막염이라는 심각한 안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고름덩어리로 뒤덮여 있어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눈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늘 빨갛게 충혈된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학교생활 또한 점점 힘들어졌으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7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의 아주 어린 시절과 대학 졸업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의 다른 사진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 건강 문제로 인해 사진 찍는 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질적인 눈병은 사회적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이 깊어졌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삶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커져갔습니다.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소설 "변신 (Die Verwandlung)"의 주인공 그레고르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 사회에서 점차 고립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신체 변형은 내적인 고립과 절망을 상징하며,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그의 절망스러운 고백은 제가 경험했던 심리적 상태와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아침 고름으로 덮인 제 눈을 보면서 마치 더러운 벌레가 된 듯한 자괴감에 빠졌고,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제 내면의 절망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레고르가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고 삶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은 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저도 점점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고, 제 삶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그레고르가 느꼈던 고립과 절망은, 제게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레고르의 고통 속에서 저 자신을 투영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내면의 상태를 돌이켜 보며 다시금 회복과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삶

고질적인 눈병으로 인해 장시간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보통 두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제한된 시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한 덕분에 학업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아 서울중학교에서 서울고등학교 본교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오히려 삶은 약점이 있다하더라도 살길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삶은 모순적입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독일 철학자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니체는 "고통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이다."라는 말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힘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절망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삶이란 죽기까지는 사는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 죽은 듯 살아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제게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고, 그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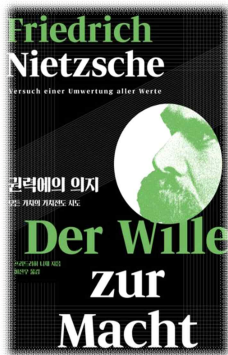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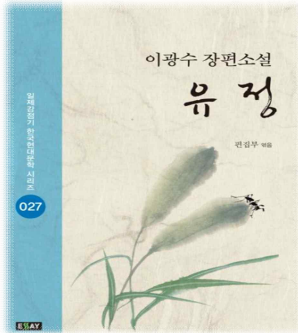


사진 강재구 소령

고등학교 재학 시절, 우리는 강재구 소령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한 대원의 수류탄 사고 순간에 자신이 몸을 던져 많은 부대원을 구한 영웅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짧고 굵게 살자"라는 말을 되새기며, 나는 오래 살 가망은 없으니 사는 동안 선택하고 집중하여 내가 꼭 해야 할 것에만 시간을 써야겠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우리는 그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마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랑자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를 자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최희준의 "하숙생"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방황하는 삶의 덧없음과 허

무함을 노래하는데, 가사 속의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말자 미련이랑 두지말자 인생은 별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라는 구절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소설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소설로는 이광수의 유정과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유정의 주인공 현우는 일제강점기라는 혼란 속에서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시대의 억압 속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 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반면,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주인공 경아의 방황과 상실을 통해 인생의 부조리와 허무함을 강렬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도시에선 모든 게 빛나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저 텅 빈 별들일 뿐이야”라는 경아의 독백은 당시의 저에게도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들이 주는 통찰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자신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삶의 모순과 허무를 일깨워 주었지만, 제 삶에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해결책 없는 방향 속에서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삶의 전기-합기도 수련과 성경공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쉬는 시간마다 항상 반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레슬링이나 무술 대결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싸움 기술을 익힌 친구들이 교실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저도 가끔은 목소리를 높이고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싸움 기술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키가 매우 작고, 운동 신경도 좋지 않았으며, 눈 질환으로 인해 운동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체육 시간은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농구공을 가지고 재주 부리며 이겨내는 방법도 몰랐고, 야구놀이시합에서는 공을 받을 줄도 몰라 바보취

급 당하기 일쑤였고 유도 수업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한판하면 넘어지고 깨지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음에 한이 맺혀있던 저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제일 먼저 합기도 도장에 등록하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심기일전 결심하고 합기도 도장에 등록하고 매주 4번씩 5년 동안 꾸준히 합기도를 연마했습니다. 합기도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싸움에 자신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도 나자신을 방어하고, 싸울때 싸울수 있는 몸과 마음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눈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합기도 수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인내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왼쪽부터
현유광,
박득훈,
이승장 목사

위 사진에 있는 세 분은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신앙을 형성하던 중요한 시기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신학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목사로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UBF와는 길을 달리하였으나 이분들이 저의 신앙 여정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여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귀한 분들입니다. (그 당시 UBF 모든 리더들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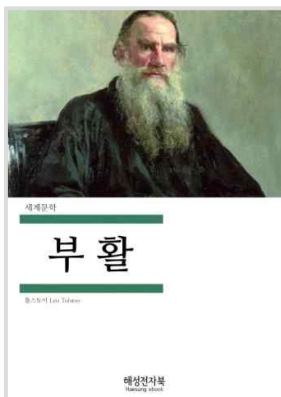
현유광 목자는 저를 처음으로 타임 디스커션 그룹에 소개해 주셨고, 이후 1:1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친절하며 배려심 깊으신 그분은 제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졸업식 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자상하신 지도는 제 신앙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운데 계신 박득훈 목자는 제가 1970년에 입학한 후 1년 뒤인 1971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군면제가 되자 대학을 빨리 졸업하기보다 1년 휴학을 하고자 결정했기에 결국 1975년에 같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렀던 저와 달리, 박 목사님은

믿음의 행동을 중시하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분의 따뜻한 초대 덕분에 UBF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겸손하셨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로서, 박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윤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이승장 목자님은 서대문 UBF의 지도자로 섬기셨습니다. 키가 크고 유능하며 헌신적이셨던 그분은 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격려해주신 분입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군대도 가보지 못한 저에게 선교후보였던 간호장교 최영숙대위 (결혼후 홍사라)를 장차 아내가 되도록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자로서의 분별력과 희생적인 마음은 제 영적 성장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은 모두 진실하고 겸손하며 성실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은 저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신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도움으로 서대문 UBF 성경 공부와 교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17)라는 구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황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자와 같았으며, 그런 저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해 부활의 진리에 대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레오 톨스토이의 『부활』을 다시 읽게 되었고, 주인공 니콜라이 네흘류도프가 삶의 본질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경험과 성경 공부를 통해, 저는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되었고, 조금씩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학과 신앙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저는 점점 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UBF 공동체에서 저는 겸손하게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준 훌륭한 자매들과 진정한 형제들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1년 정도 배운 합기도 실력으로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 명의 형제들에게

합기도 기본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서대문의 이승장 목자는 제가 우렁찬 목소리와 규율 있는 훈련 지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부터 저를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고 보셨는지 저에게 '장군'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합기도수련과 성경공부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저의 영혼과 마음과 신체가 점점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무렵에는 안질환으로부터 해방을 맞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시절 5년동안 UBF를 통한 성경 공부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전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막연하고 멀리 있는 존재였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두 가지 운동이 병행되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개발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경제 개발은 국가의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국가로 여겨졌으며, 한 외국 정치인은 "쓰레기 같은 한국의 환경에서는 장미가 피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한국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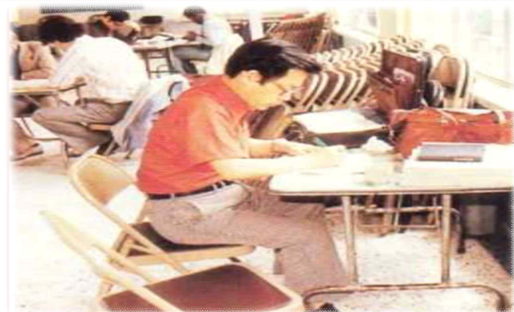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 성장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에 독재 정권은 장기 집권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반독재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헌법 개정 시도와 권위주의적 억압에 강력히 저항하며,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고, 국민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경제 성장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청년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돕기 위해 서독으로 건너가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국가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형님과 저의 아내도 베트남에 파병되어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 군대의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총을 들고
지키는 계엄군



위 사진은 정부에 의해 대학이 휴교된 동안 UBF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말씀을 깊이 배우고, 미래의 지도자로 자라나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사무엘 선교사가 UBF 센터 한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당시 UBF는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며 사역을 감당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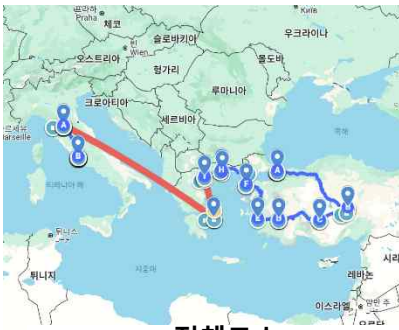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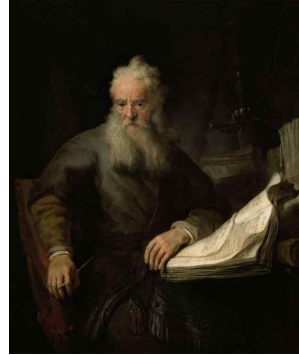
이러한 시기 동안 UBF는 성경 학교를 운영하며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UBF의 학생 리더들은 이들 동료들과 달리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어디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가겠다는 각오로 헌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50년 세월이 지나 동료 학생들과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모두가 각자의 신념에 따라 헌신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UBF사역을 통해 대학5년(한해 휴학함)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경 공부, 기도, 일용할 양식, 교제, 전도, 그리고 예배와 같은 영적 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쌓아가며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훌륭한 선배목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참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이고 성실한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 초기 신앙 생활이 성경 공부, 기도, 교제, 예배와 같은 필수적인 영적 습관들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저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중요한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고난이 성장의 기회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헌신과 인격을 보여주신 몇몇 멘토들의 역할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그분들은 저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주셨고, 그리스도 중심의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돌아보면, UBF 공동체는 견고한 성경에 기초한 신앙원칙과 체계적인 영적 훈련을 바탕으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의 토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존중, 격려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제는 저의 질병과 감정적 고통을 치유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시절에 형성된 우정과 영적 성장은 지금도 저에게 큰 힘과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 시절 배운 교훈들이 특정 시간과 장소를 넘어 지속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적 습관을 유지하는 훈련, 경건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기쁨은 오늘날에도 제 삶을 인도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원칙들은 신앙 생활이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며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분명히, 그때의 치유, 영적 재탄생, 그리고 성숙의 순간들은 지금도 제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감사와 함께 더 깊이 다져가고 싶은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글 김진석



이 무모한 여행을 기록하기에 앞서 물질과 시간, 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걱정 많으셨지만 흔쾌히 보내주신 부모님과 기도로 지원 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부대 교회에서 여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전반을 살펴보았는데 사도바울의 여행이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 이번 여행의 기간은 2024. 8.12.~ 9.5, 나라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4일 이스탄불, 15~17일 괴레메, 17~18일 코니아, 19일 데니즐리(파묵칼레), 19~21일 셀축, 21~22일 차나칼레, 22~23일 테살로니키, 24일 카발라, 빌립보, 25~27일 아테네, 27~31일 피렌체, 9.1~4일 로마->5일 인천도착.

여행 전부를 소개드릴 수 없어서 일부 도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은 콘야(이고니온)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콘야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당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받은 곳입니다(행 14:1-5). 성경 속 갈라디아 지방(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해당하며 바울이 후에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며 반드시 거쳐갔던 지역 중 하나였기에

바울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갈 때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가 유명한 지역이고 사실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스에서 내리자 관광객은 저뿐이었습니다. 동양인은커녕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저에게 신경쓰지 않았고 시내는 제가 가본 터키 도시 중 가장 깨끗했습니다.



<사도바울 기념교회>

저는 콘야에서 사도바울 기념교회, 헬레나 교회를 갔습니다. 사도바울 기념교회는 문이 닫혀있어 주변만 맴돌았지만 99%가 이슬람을 믿는 터키에서 굳건히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헬레나 교회는 실레 마을에 있으며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의 이고니온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처음으로 본 기독교 유적이었기에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지로 유명했던 곳이 지금은 현지인, 관광객조차 발길을 끊은 곳이라는 점에서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셀축(에베소)입니다. 사도바울이 지내던 시절, 이곳은 큰 항구도시이자 로마의 4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역을 맡긴 곳입니다(행 18:19-21). 또 3차 여행 중에는 오랜기간 머물며 세례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 흥행하던 마술사들은 자진해서 그들의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행 19장).



<셀수스 도서관>

제가 갔던 곳은 셀수스 도서관(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페수스 고대 도시입니다. 그 정교한 건축물과 주변의 흥행하던 상점 및 유희점을 보고 이 도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그 속에서 곳곳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에 대해 설교하는 바울의 우렁찬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압볼리 벽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카발라(네압볼리)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꿈속에서 마게도냐인을 보고 처음 밟았던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해당 벽화에는 바울이 수염이 없는 사람을 보고 건너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마게도냐인이 수염이 없기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라든가 추론이 있어서 벽화 상에도 대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실라와 기도할 곳(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 근처 강가로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복음의 기초가 부족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귀한 여인의 마음을 일으키셨고 그녀를 중심으로 복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강가>

루디아의 집까지 걸어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식이 안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야외에서는 가톨릭 성찬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발은 담그지 못했지만 힘차게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들린 여종을 치유해줬다고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감옥이 열렸고, 이로 인해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감옥>



<아레오바고 언덕 사도행전 말씀>

사진이 해당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사진 찍기를 기다리는데 한 외국인이 사진을 요청했고 흔쾌히 찍어드리자 “Do you believe Christ?”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Of course.”라고 답하자 그분이 기뻐하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제 여행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수십 번 타인의 사진요청을 받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번이 제가 받은 최고의 감사 선물이었습니다. 외모와 언어의 다름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외국인도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아테네(아텐)입니다. 바울은 이곳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을 포함한 이방인에게 알지 못하는 신, 즉 하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행 17:16-34). 현재 아레오바고 언덕에는 그 사도행전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 멀리 파르테논 신전이 높이 솟아 있고 아래에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을 포함해 별의별 신을 모시는 공간이 있는 가운데 바울은 언덕에서 담대히 유일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친 유일한 한국인이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숙소에 묵었고, 다음날 혼자 아테네 한인교회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여행 중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덕분에 아테네 전역을 포함해 고린도 투어까지, 혼자라면 비싸고 외로웠을 여행을 함께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여행에서 느낀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제 마음을 잘 아시고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테네 한인교회
인연>**

마지막으로 로마입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서신을 썼던 셋집이 있고(문을 닫아 가보진 못했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참수형 당했다고 알려진 세 분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시내와 꽤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시내 외곽의 거대한 성 바울 대성당과 비교될 만큼 매우 초라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사형을 선고받고 가던 길을 걸어보며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세 분수 수도원, 바울의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

딤후 4:7,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 결과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춥고 배고픈 환경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것임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보상을 확신하고 곧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간 그가 부러운 한편, 저와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돌아보며 저는 바울이 2001년 대한민국 제기동의 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디로 전도여행을 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지만 저는 북한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이 항상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전도를 시작했던 점, 가까이 살지만 누구보다 완악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과 끝까지 씨름했던 점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바울은 북한을 개척하고 싶어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흔적을 보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세계 복음화, 특히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행 중 많이 참고했던 유튜브 '바울로부터'라는 영상 추천드립니다!

(통 471)

십자가 그늘 아래

4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E. C. Clephane(1830-1869)

(갈 6:14)

ST. CHRISTOPHER: 7.6.8.6.8.6.8.6.

F. C. Maker, 1881

보통으로

1.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2. 내 눈을 밤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3. 십자가 그늘 에 서 나 십자가 이 살 겠 네

저 날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나 위사 해고 난 당황하신 주 예수
 모하 는 광채 는 주 예 수 보 인 이 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이 세상 상나 를 버려 도 나 두 려 움 없 네

주 십자가 의 그늘에 내 실컷 찾았네
 그 사랑 감당 못 하 여 눈물만 흘리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 라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Db → C Ab7 → G7 Bbm → Am Bb → A Ebm → Dm Gb → F F → E

찬송가 소개

글 진옥미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찬송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악가이자 가스펠 가수인 박종호씨가 부른 찬양들을 듣다가 그중에 이 찬송가가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호씨가 부른 찬송가의 제목은 ‘십자가 그늘 밑’으로 찬송가 415장 제목인 ‘십자가 그늘 아래’와 약간 다르지만 가사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쉼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사랑 감당 못 하여 눈물만 흘린다는 것,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고, 내 영광은 십자가뿐이라는 가사가 감동적으로 느껴졌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와 작곡가에 대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는 스코틀랜드의 여류 찬송 시인 엘리자베스 클리페인(Elizabeth Cecelia Douglas Clephane, 1830~1869)이 작사하였고, 영국의 교회음악가 프레데릭 메이커(Frederick Maker, 1844~1927)가 작곡하였습니다.

클리페인은 죽기 바로 전에 이 찬송가를 작사하였습니다. 그녀는 39세의 짧은 생애를 밝은 햇살같이 살아 ‘햇살’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명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은 메이커가 작곡하였으며, 그는 영국 자유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칸타타와 성가곡도 작곡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1872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발행하는 가정잡지 ‘가정의 보화’(Family Treasury)에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며 무거운 이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쉬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Cross 2024년 10월호(통권 18호)

발행인 이창무

편집 진옥미

펴낸곳 안암1부 UBF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사로 9길 71-2

이메일 boss1842@daum.net





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